



- 성경통독 79명 수료
- 교회소식 / 간증
- 세리토스채플 이전
- 칼럼 / 화보

## ■ 은혜의 강단

# 올바른 종말론과 성도의 삶



평신도 필수과정인 '주안에마음' 2단계 과정 '주안에생명'이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밸리채플 본당에서 열렸다. (세리토스채플 6월 21일)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을 설명하는 1단계 '주안에만남'에 이은 2단계 코스인 '주안에생명'은 당초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론, 종말론 등 3개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었으

나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종말론 한 주제만을 놓고 심도있게 진행됐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종말론 강의는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부활, 최후 심판과 마지막 상태, 개인적 종말 등 5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온 최혁 담임목사는 우주적 종

말론의 근간이 되고 있는 '3가지 학설 + 파생설'을 기초로 평신도들이 성경의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목사는 "신도들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올바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의 현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다"며 종말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성경 전체로 풀어 나갈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종말론의 전반적 개요가 되고 있는 천년설을 크게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로 구분하고 전천년설에서 파생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의에 따르면 무천년설은 정통 복음주의와 개신교가 지지하는 설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숫자적 개념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면에 계속> | 이재호 기자 |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성경통독 79명 수료



## ■ 주안에말씀 1기

주안예교회 평신도훈련 프로그램 중, 전 성도들이 이수해야 하는 성경통독 프로그램 ‘주안에말씀’ 첫 수료생 79명이 배출됐다. 금년 1월 벨리, 세리토스 채플에 개설된 클래스에 등록한 성도들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평균 70장의 성경을 읽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20장을 함께 읽고, 각자 개인적으로 50장을 읽어 18주만에 완독한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날마다 시간을 따로 정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복되는 족보와 성막의 식양 등에 이르면 건너 뛰거나 도중하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함께 힘든 고비도 잘 넘기면서 통독의 성취감 보다 각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이 풍성하다. 자 금년 2기에 도전해 보자!

다음은 채플별 통독반 수료자들의 명단이다.

● 주안에말씀(세리토스): 고영진, 고혜실, 김남훈, 김명숙, 김명미, 김비옥, 김상선, 김에스더, 김옥희, 김유정, 김재희, 김진경, 김찬준, 김희중, 남기안, 남만식, 류만 레이철, 박명순, 박상숙, 박은래, 박정식, 박진영, 서기자, 신원숙, 안장호, 유영애, 유종배, 이경희, 이계진, 이명선, 이명희, 이에스더, 이영진, 이춘희, 정세화, 정영운, 정영주, 정영희, 최경원, 최미금, 황동성, 황은숙 (총 42명)

● 주안에말씀(벨리): 강요숙, 공수옥, 김경희, 김권희, 김복남, 김복순, 김재주, 김제니퍼, 박금자, 박한신, 송상화, 송총자, 안인숙, 오성태, 오윤선, 오찬국, 오한복, 오희경, 유희진, 윤미라, 윤상란, 윤세희, 윤찬임, 은종인, 이명순, 이명주, 이원근, 장지영, 정소연, 정연식, 정인자, 정혜옥, 조규진, 하 앤젤라, 홍영주, 홍영표, 황종훈 (총 37명)



## ■ 주안에생명

### 성도의 종말은 소망과 기쁨

〈1편서 계속〉 후천년설의 천년 역시 상징적 의미로 신약시대와 예수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동안 기독교가 확산되며 유토피아의 세상이 건설될 것이라는 19세기 역사적 낙관주의에 편승한 이론이나 2차대전 이후 그 힘을 잃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학설로 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설에서 파생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1, 2차로 나누고 그사이에 7년 대환란과 아말겟돈의 시대가 있다고 설파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교에 몰입하게 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낳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7세대로 구분함에 따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란 명칭을 갖게된 이 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접한 학설이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유행했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 학설에 근거한 종말



론이 한국에서 대세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벨리 6교구 1구역의 이유허 집사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종말론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다”며 “종말론의 전체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6시간 집약적 교육도 좋았지만 교회에서 16시간 종말론 풀코스 강의를 개설한다면 꼭 다시 듣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개인적 종말로 이날 강의를 마무리 한 최 목사

는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라며 이를 위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신자들이 종말을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로 나와있는 것 같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설명한 최 목사는 “매일 매일 평상심을 갖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 세리토스채플 이전

##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감격과 기쁨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기쁨과 설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새 성전에서는 냉난방시설이 좋아 더위나 추위에 지장 없이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토스 성전에서 새벽부터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셋업팀의 노고를 조금 덜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성전으로 꽂 채워졌고 우리 자체 성전이 아님에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성전을 가질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우리 성도의 이곳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장막의 삶일진데 아버지 나라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큰 감동과 감격으로 매일 예배하며 살게 될까를 생각하니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다우니에서 세리토스로  
다시 산타페 스프링스  
하나님의 은혜 누리워

나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인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도와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Santa Fe Springs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편하고 우리의 기호에 맞는 성전을 꿈꾸고 있는가. 예배당이 마치 교회의 영적 수준인 것처럼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저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작년 5월 26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우니에 주안예교회 첫 예배를 허락하셨고, 9월 15

일 세리토스에 예배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 6월 1일 첫 주부터 산타페 스프링스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이진함에 우리의 수고나 헌신은 미약했습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앞서서 성전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배장소로 점점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우리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예교회에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므로 나와 우리 교우 모두가 영의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 김경일 기자 |





■ EIKON 종강 발표회

## 대견스런 다음세대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5월 30일 저녁 6시 24분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열심히 뛰고 배운 EIKON 아이들의 발표회 초대장이다. 물론 아이들은 발표회 당일도 어김없이 9시부터 모여 마지막 연습에 열을 올렸다.

놀이하듯 작업한 ART CLASS에선 멋들어진 작품들이 모였고 예쁜 드레스와 멋진 슈트를 차려입은 아이들은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피아노 치는 모습이나 긴장도만큼은 일류 피아니스트 못지 않았다. 연습실을 나란히 쓰던 플룻과 드럼 CLASS는 극과 극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주 진중하고 차분한 플룻, 교회 지붕을 날릴 듯 서로의 비트를 맞춘 드럼팀은 흥을 돋우었다. 경제대국 일본선교를 꿈꾸며 시작된 일본어 클래스에선 간단한 대화와 아이들은 물론 부모 역시 절로 흥얼거리게 된 FROZEN의 LET IT GO 일본어 버전을 합창했다. 처음 기타를 칠 때는 소음 같은 불협화음을 내더니 어느새 함께 연주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각 CLASS의 발표는 1시간을 조금 넘게 진행되었다.

12시 30분 발표회장 한 칸에서는 WISE MOTHER CLASS 어머니들과 공태형 집사님의 합작 LA 갈비로 아이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만찬을 준비했다.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9월쯤 가을학기가 시작될 것이다. 가을학기는 첫 학기를 진행해가면서 학생들보다 더욱 감동받고 재능기부하며 은혜 받은 선생님들의 깊어진 제자사랑과 나



날 것이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져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10년전 큰아이가 벨리체플 근처 미국교회에서 운영하는 PRESCHOOL을 다녔었다. 학회회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가 울컥했던 일이 있었다. 나의 가벼움과 다르게 아이의 반 친구들은 엄청난 지원군을 몰고 왔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모든 지인들이 총출동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무언으로 전달하는, 열 마디 칭찬이나 격려의 말보다 강렬한 행동이었다. 나를 향해 보내는 무한한 지지눈길, 박수와 환호가 아이들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다. 내 아이에

겐 그런 지원군이 없다는 것이 미안하고 가슴이 아렸다.

발표회 장소가 성가대 연습실이란 사실을 교회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되었다. 60여명의 학생과 30명가량의 부모님들이 참석했고 아이들은 이 발표회를 한달가량 준비했다. 우리 주안예교회의 다음세대가 되어줄 아이들의 행사가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0여년 전 그때와는 다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나는 오늘 의젓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발표회가 다음에는 더 성대하게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채은영 기자 |

■ 학부모 간담회

## 두번째 수련회, 기도로 준비하면서

5/22/14 목요일 저녁에배 후 ICY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다. 주중예배 후여서인지 리더모임과 중복되어서인지 여러가지 편치않은 상황으로 소수의 학부모를 모시고 열린 학부모간담회가 40분정도 이뤄졌다.

몇 주 전 아이들에게 전달된 DRESS CODE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잠깐의 설명에 이어 여름 수련회 준비경도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내용이 전달되었다.

가장 주된 내용이었던 여름 수련회는 6월 마지막 주 25일(수요일)부터 6월 28일(토요일) 3박 4일로 진행된다.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준비할 것들이 많다 하였고 그러니 만큼 도움도 절실하다.

지난 겨울 수련회는 벨리체플이 생긴 후 처음 치뤄지는 큰 행사였으나 준비시간이 짧았고 여러 해 수련회를 치루지 못한 벨리체플 학생들에게는 낯설기까지 하여 여러가지 미숙한 일이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벌써 두어달 전부터 기도를 시작으로 준비했다.

겨울 수련회에서 중고등부가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격차가 심했던 것을 감안 이번 여름수련회에서는 중고등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부서가 분리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서가 분리되어 진행하자면 이전보다 두배이상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특별히 중등부에서는 찬양팀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다.

특히나 전자기타 반주가 가능한 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중등부의 간청이 있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짐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주제구절 하에 “DEEP”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모든 참가 학생과 봉사하신 부모님을 포함한 선생님, 교역자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모두 은혜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수련회 참석 인원은 고등부 31명, 중등부 30명, 교역자 5명, 학부모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충만을 체험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 주안에캠프

## 3박 4일, 인생의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주안에캠프 제 1기가 8월 24일(주일)부터 27일(수)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빅베어 파인 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주안에캠프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깊이있게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Powerful 한 Program 입니다.

3박 4일동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우리가 짊어진 세상의 걱정과 근심, 상처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고 섬기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최혁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안에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후회없는 신앙생활과 나의 인생을 위한 3박 4일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참가대상은 과거에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아직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나 누구에게나 Open 입니다.

주안에캠프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Program 과 다릅니다. 주안에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Program 이므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새롭게 경험할 천국잔치에 많은 분들이 Candidate 으로 참여하실 뿐 아니라 Team Member 로도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에캠프를 통하여 Valley chapel 과 Cerritos chapel 성도 간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안에캠프의 영어명은 IC Camp 입니다. | 이방걸 장로 |

■ 주안에말씀 인도자 간증

### “ 길거리에서, 집에서 큰소리로 통독... 성령충만 ”

우리 주안에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이 주관하는 성경통독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통독을 시작하며 제 마음 속에 다가오는 성령님의 터치와 은혜에 '나만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하며 시간시간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내심 죄송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 보았지만 작심 3일이었습니다. 안경을 써도 집중이 안되고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읽어야 하나요... 통독 인도를 부탁받고 불안한 가운데 일하던 중 짊어 나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열어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의 글씨보다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너무 밝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몰래 안경도 없이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주위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기를 20-30분. 아! 이거로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소리로 길에서 읽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창피함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날부터 낮에는 스마트폰 저녁에는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었기에 집에

서 읽기에는 집중하기도 쉽고 시력에도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아! 성령님도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묘하게 일하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시간 회를 거듭하며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통독을 인도하다 저 스스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통독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열정과 사모함으로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함께 읽어가는 시간시간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늘 통독반에 가득함을 느끼며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읽기에 그 통독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도 감동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 바쁜 이민생활을 하기에 성경을 매일 시간 내어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읽기가 습관이 되고 항상 말씀 안에 있어 너무 좋았다며 고백하는 집사님, 함께 읽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기뻐다는 집사님, 집에서 큰 소리 내어 읽기에 눈으로 볼 때보다 무언가를 더 찾을 수 있었다며 그 무언가가 성경일독이던 긴 터널을 이끌어 주셨고 무사히 끝내므로 이전 성경을 읽기에 자신도 생겼다

는 성도님, 모두의 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8주의 긴 여정을 끝내며 지면을 통해 평신도 사역 훈련원을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통독을 위한 자리를 셋업하시느라 수고하신 집사님들,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매주 성경통독을 인도하신 김경일 장로님과 무엇보다 쫓기는 식사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졸지 않고 끝까지 통독과 뒷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신 1기 통독 수료자 42명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될 성경통독 과정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말씀읽기를 통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올인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신희철 장로 |







“주안에교회는 행복이 넘쳐요”



이쁜 내 동생, 많이 먹어라



오전 강의 끝, 꿀맛 같은 도시락



대한민국, 이때만해도 좋았는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 예수님, 나 처음 교회 나왔어요 ”



해피 마더스데이, 사랑과 감사의 카네이션



해피 파더스데이, 냉커피 한 잔 드세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뒀다, 자전거 파킹랏 단속반



■ 문학과 삶

저마다의 얼굴이 다르듯 저마다의 삶이 있으나, 죽음 앞에서 허둥대며 살다가 옷조차 입혀주어야 떠나는 우리에게 인생인데, 왜 그리도 아파하며 살아가는지?

실제 우리들의 삶은 참 만만치 않았다! 우리 모두가 고통의 그늘과 절망의 눈물을 지난 후에야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되었듯이, 누구에게나 그늘은 있기 마련이고, 바로 그 그늘을 지나왔기에 한 사람 한 인격이 이리도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 괴로워도 해보고,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 한번쯤은 가슴 절절한 사랑도 해보았고, 서로 기쁨을 나누어도 보았고,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려도 보았다.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두운 그늘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한 인간이 빚어졌고, 그런 아픔과 절망속에서 깎이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요히 아름다운 이 자리까지...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게 햇빛이라면,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암울한 절망이 그늘이라면, 우리 모두 햇빛만을 강렬히 소망할진데... 그러나, 더운 여름 뜨거운 산행길, 우리는 그리도 그늘을 찾지 않았던가?

항상 햇빛만 비추인다면 어느 날 그곳은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진리를 보듬는다. 정녕 우리 인생이란 땅은, 가끔 고통이란 비, 절망이란 눈보라가 몰아치기 때문에 사막이 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오랜 여행길에서 집에 돌아와 짐을 푸는 가장 편한 나의 그늘, 그 곳이 내가 가장 편안히 쉴수있는 곳인 것처럼, 눈물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 시작되면 고통이 시작되듯, 눈물을 수반하는 즉 사랑과 고통은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으리라.

우리네 삶이 아픈것은 그 가시 가운데서 장미를 꽃 피우기 위한 이유라 했다. 그 아픔을 다 알고 난 후 내 인생의 그늘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다면,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벗에게 나는 오늘 정갈히 다듬은 하얀 면 손수건을 건네주리라... 유월에 만발한 장미향기를 그 눈물젖은 두 볼에 듬뿍 찍어주리라...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들과 눈물을 아는 그대에게...



서미숙 기자

■ 소그룹 요리 팁

라일/팥/빙수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구역식구들을 위한 짹짹 IDEA...  
갈증을 달래주는 짜릿한 팥빙수 RECIPE 소개합니다.



1. 재료 (4인분 기준)

얼음(집에서 얼린 것 1큰볼 또는 우유 얼린 것도 가능), 팥(2 can), 여러가지 과일(딸기, 키위, 망고, 블루베리, 수박 등), 모찌 떡 약간(한국마켓에 있음), 꽃감 2개(약간 얼려 둔다), 우유 (5큰술), Ice Cream (1 spoon), 잘게 간 Nuts

2. 만드는 법

- ① 집에 있는 얼음이나 또는 얼음판에 우유 얼린 것을 믹서로 곱게 간다.
- ② 예쁜 볼에 곱게 간 얼음을 담고 그 위에 Can

에 들어 있는 팥을 올린다.

- ③ 잘게 썬 과일들을 색을 맞추어 가지런히 탑핑한다.
- ④ 떡과 꽃감을 잘게 썰어 같이 예쁘게 탑핑한다.
- ⑤ 장식이 끝나면 우유를 약간 뿌려준다. (얼린 우유를 사용했을 경우는 생략한다.)
- ⑥ 취향에 따라 아이스크림 1스푼을 과일 위에 올리고, 잘게 간 Nuts를 그 위에 뿌려 Serve한다.



오윤선 집사



■ 구역장 간증

## “온 맘과 정성 다해 섬기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작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혁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시아버님의 병환이 날로 악화되고 있던 터라 남편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과 말씀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헤미아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 한 것 중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 16:7)”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구역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가정조차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 모르면서 뭘, 어떻게 또 다른 가정을 섬긴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바로 무릎꿇고 기도했습니다. 시아버님 병환에 대해 기도한 기도 응답이 구역장으로 답이 오는 관계는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그 근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만은 정말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으로 오게 됨을 감지하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 주신 내용을 기도로 순종하되, 지금껏 우리가 두 가지의 구역예배를 경험한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약 5년간에 걸쳐 경험한 두 가지의 구역예배는 극과 극의 예배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예배 특히, 구역원의 아

픘를 덮어주고 위로해 주며 격려하면서, 구역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구역예배와 음료와 담소가 전부인 구역예배였습니다. 남편은 두 가지 모두 좋은 경험이라고 말합니다만, 저의 경우는 전자의 구역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구역예배가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두가지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내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를 더 부서트리고 찢어냄을 통해 구역식구를 더 사랑하고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결코 제가 드러나지 않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를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며, 예배시간만의 예배가 아닌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구역식구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안동윤, 안유은 교구장님 댁에서 교구예배를 드리며, 첫 만남을 갖었습니다. 정말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 생각을 이야기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대변해 드려야 하는지, 차라리 묻거나 말으면 좋겠는데 라며 고민하던 중에 어느덧 교구장님의 인도로 찬송과 말씀, 기도의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구원 모두는 자연스럽게 입가의 미소가 차츰 큰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로 묶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구원 모두는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츰 교구, 구역예배가 회를 거듭하면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나눌 때에 우리는 이미 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이야기를 화제 삼아 담소를

나누는 무질서한 교구, 구역이 아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 낮아지고 섬기려고 애쓰는 식구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겸손이 몸에 베인 구역식구를 섬기려다 보니,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 얼마나 더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런지,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하며, 구역식구들을 보며 더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구역 온 가족은 2박 3일 팜스프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밤을 꼬박 세우며,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에 북받치는 감사함이 밀려왔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있고, 상대의 필요를 보이지 않게 채워주려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구역에서 금요 찬양예배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피아노를 치며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는 어느덧 금요예배를 이틀 앞두고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금요예배 찬양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옆에서 한참을 어머니께 설명하며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할렐루야를 연거푸 외쳤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시고, 이제는 제대로 식사도 하시고, 걷는 것도 가능하시어 지난주부터 뒷산도 오르시고, 혈당도 정상인 수치로 이주일간 지속된다는 굿뉴스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최근 10개월간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 가족,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은 지난 과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는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의 지체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였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매일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초신자였던 기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이정은 집사  
(벨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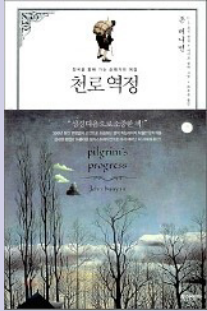




추천도서

존 번연 작, "천로역정"  
(원제: The Pilgrim's Progress)

신앙인의 삶을 인도해 주는 이정표



책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 책을 잘 알고 추천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10여번이나 정독을 했음에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서라기 보다, 읽을 때마다 마치 성경처럼 새로운 깊이가 느껴지는 풍성한 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고전 중의 고전이면서 해석적 풍자를 통해 기독교의 정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수작으로, 기록된지 무려 3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번연은 집필과정에 대해 "특별한 목적 없이 마치 실이 풀리듯 쏟아져 나온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에게 구도의 지침과 영적 깨달음의 힘이 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시절 신앙에 있어서 질문이 많던 그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문득 짐게 되었던 이 책이 준 감동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잠자마자 끊임없이 읽어서 4일만에 독과하고 너무 은혜가 넘쳐서 곧바로 스스로 독후감을 쓴 기억이 납니다. 찰스 스펔전 목사님이 이 책을 100독 했다는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내와 네 아이들을 뒤로한 채 불과 유황의 심판을 앞둔 '멸망의 성읍(City of Destruction)'을 떠난 순례자 크리스찬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또한 무수한 함정과 유혹을 힘겹게 물리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즉 '천성(Celestial Country)'에 입성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는 역경의 과정을 그린 우화소설입니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걸어 다니다가 어

는 동굴에 이르게 되었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 집을 등지고 있는데,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울었고 무서워하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슬픈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의 진짜 정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천로역정"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정환 목사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b>Main Office</b>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b>Downtown Office</b>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	---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om  
www.bdo.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 J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818.621.8949**  
[O] 818.881.2300 [F] 818.495.2500  
[E]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leetm@gmail.com  
17559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 01303681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 기자칼럼

용기 있는 여성, 미리암에게 배우는 리더십

내가 본 미리암은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미리암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막내 동생, 자식이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엄마를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지 않았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예쁜 동생을 살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섰다. 이방인 노예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없이 이집트 왕국의 실세 공주에게 거침없이 다가가 “작은 방주” 바구니에 담긴 남동생을 인도하고 유모로 엄마를 주선하여 동생을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 놓았다. 모세는 그렇게 3년 정도로 추정되는 시간을 친엄마 품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다(출2:1-10). 유대인 엄마들이 아이 젖을 물리고 자장가처럼 들려주는 탈무드를 들으며 말이다.

아마 미리암은 청년으로 장성하는 동생 모세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모세를 제자리로 돌리실지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젊은 혈기에 동족을 돕는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동족으로 부터 버림받고 도망칠 때에도 미리암은 안쓰럽게 지켜봤을 것이다. 2천년 전 예수님 떠나 모세의 떠나 여성이 사람취급받지 못했던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말이다. 시절을 생각하며 대중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랜 방황 끝에 이집

트로 돌아오는 모세를 맞이하여 말이 어눌했던 모세에게 언변이 좋은 아론은 조력자가 되었다. 애굽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임하는 내내 모세와 아론이 출연한다. 성경엔 미리암은 뒤에는 애굽군대, 앞은 홍해로 막혀있던 긴박했던 상황의 끝자락에서 흔들렸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며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소고를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출15:20-21) 리더로 나타난다.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손위 누이인 미리암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의 여성들도 제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전 미리암은 힐러리 못지 않은 조력자요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인구를 셀 때조차 제외되며 한낱 소유물, 가족과 같은 취급을 당하던 당신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미리암을 떠올리면 가히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싶다. 이 하찮은 여성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던 말인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신분에 당당히 만민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없이 매사에 당당하던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때가 있었다(민12장).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리에 무게 중심을 두

자 그렇게 현명하고 용감하던 미리암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 모세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이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진박으로 내침을 당한 것이다. 7일 동안 진박으로 쫓겨났다. 병고침을 받고 진영으로 돌아왔고 미리암이 진박에 나가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한치도 전진하지 않았다. 미리암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리암은 광야 40년이 끝나는 해 정월 가네스 광야에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민 20:1)

현대사회는 여성의 역할이나 목소리가 점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전세대에 존재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은 무너졌고 새로운 아버지상은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요즘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될수록 남성화 되는 여성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여성 리더십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생에 녹아든 하나님의 음성예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 위태로운 시절, 진정한 여성 리더로서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흔들리는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참된 여성 리더의 분이 될만한 성경 속 많은 여성 리더들 중 “미리암”을 마음에 품고 이 여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봄은 어떨지. | 채은영 기자 |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Tel: 562.868.0788  
Norwalk, CA 90650 Cell: 213.507.1313  
daniel@HankookMortuary.com Fax: 562.868.2808



**Kyung (Kenny) Kim**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CA Insurance Lic # 0C41666  
Registered Representative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MetLife of Southern California**  
150 S. Los Robles Ave., Suite 750  
Pasadena, CA 91101

Direct (626) 755-2181  
Cell (818) 307-4894  
Fax (626) 755-2169  
kkim5@metlife.com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MLIC), New York, NY 10166.  
Securities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MetLife Securities, Inc. (MSI) (FINRA/SIPC),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MLIC and MSI are MetLife Inc. companies.

인터넷 비즈니스



월 2500달러 이상  
올릴 수 있는 기회  
Tel: (213) 268-8711  
Tel: (818) 943-9211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주안에게  
우  
비즈니스  
소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울창한 삼림과 겨울과도 같이 맑은 호수, 소와 양들이 풀을 뜯는 눈부신 푸른 초원, 그리고 꽃 향기 스치는 들녘,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과 지저귀는 새 소리 등, 이런 곳에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다면 절로 부르고 싶은 찬송가로 이 곡을 손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지에서 지저귀는 저 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씨 노래 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토록 아름다운 대 자연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그 분의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찬송가는 실제로 야외에배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찬양할 때 즐겨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찬양이 합쳐질 때 경이로움이 경외심으로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하는 이 찬송가의 탄생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찬송가의 지은이는 칼 구스타프 보벌크(Carl Gustaf Boberg 1859-1940) 목사입니다. 그는 스웨덴 동해안의 “빨드”바다를 끼고 있는 “멘스텔 오스”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곳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그는 19세 때 기독교에 깊은 회심을



갖게되어 그 길로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전도자로 수 년간 활약한 보벌크목사는 1890년부터 “진리의 증인”이라는 주간지의 편집자로 26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891년부터 1924년까지 스웨덴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봉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유명한 설교가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유능한 언론인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1940년 “가르말”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시는 보벌크목사가 1885년 여름 스웨덴 남쪽 동부 해안의 “몬테 테로스”부근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시골을 방문 했을 때부터 시작 됩니다. 방문 중이던 어느 날,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천둥소리가 들리고 비가 쏟아지다가 얼마 후 그치게 되었습니다. 질푸른 구름이 순식간에 걷히며 하늘에선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롱한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릴 때 숲속에 있는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였으며 강 저쪽에 있는

교회의 종소리가 수면을 따라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대자연의 웅장한 광경을 목도한 보벌크목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꿇은채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며 써 내려간 찬송시가 스웨덴 원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O STORE GOD”이라는 이번 호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당시 9절로 이루어진 이 찬송시는 그로부터 6년 후에 자신이 편집자로 있는 주간지 “진리의 증인” 제 16호 (1891년 4월 16일자)에 실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찬송시에 매료된 한 성도가 스웨덴 사람이 잘 부르는 민요와 운율이 같음을 발견하고 그 곡에 맞춰 부르기 시작한 것이 찬송가로 완성되어 전파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스웨덴에서 보다 이웃인 폴란드, 독일,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불려지면서 삼시간에 유럽전체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근래인 1954년에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가 영국을 방문했는데 전도집회의 주제곡이라 할 만큼 운집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4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재호, 이지혜, 조용대, 채은영 (기자)

김다슬,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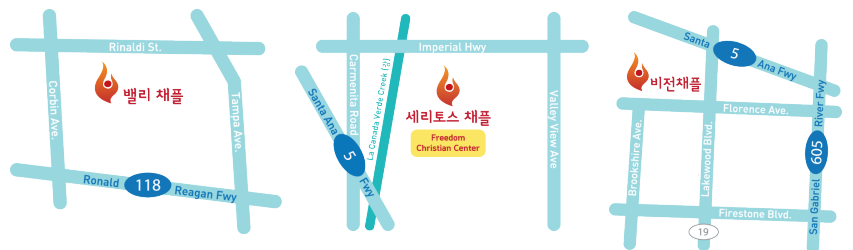
세리토스채플 / 오전 8:00, 10:00  
벨리채플 /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다우니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우니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벨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